

서울까지 2시간대... KTX진주시대 준비 박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총력
도심 통과 구간 6.1km 지하화

진주시가 'KTX 진주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 완공 이전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도교통부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77.9km, 총사업비 4조 8015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13일 관보에 고시했다.

2019년 1월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3년 만에 드디어 설계에 착수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개통되면 KTX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과 중남부권을 잇는 한반도 중심축 철도 교통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진주시청.

그동안 진주시는 노선 원안 유지, 신 진주역을 KTX역으로 활용 및 신 진주역 확장, 소음 등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도심 구간 지하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간 복선화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정부는 노선을 기존 원안대로 확정했고, 기존 신 진주역을 남부내륙철도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를 통과하는 구간 총 30.1km 중 도심 통과 구간 6.1km은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다.

1966년 김삼선(김천~진주~삼천포) 철도 기공식 이후 50여 년 동안의 서부경남 지역민의 꿈이자 염원이었다.

2014년부터 조기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본 사업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민선 7기 시작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기원식 등을 통해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착실히 대응해 왔다.

남부내륙철도는 '복선화',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향후 관광객 수요와 물류 증가 대비를 위한 노선 복선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남부내륙철도가 준공되면 외국인 관광객 160만 명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 2조 원 증가 등 역세권의 상당한 발전이 예측되기에, 이에 대한 발 빠른 대비 또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또 진주를 중심으로 광역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진주 역세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 개설부터 서부경남과 동부전남 시군과의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24시간 AI 통화비서 서비스 영양군, 전국 최초 도입

영양군은 업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24시,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20일 도입한다.

군은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도 놓치지 않고 예약기능을 활용으로 민원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 민원실 바로콜(054-683-8282)을 이용하여 '예약'과 '메모'를 남겨 통화요청 및 사전방문 예약을 할 수 있어 담당자 부재로 여러 번 전화하거나 재방문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산업곤충 양봉과정 운영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업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산업곤충 양봉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양봉 기초이론과 전문기술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8개월 동안 27회 10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시민들은 입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직접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며, 접수 기간은 2월 7일까지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담양군, 지역 4개소서 찾아가는 코로나 진단검사

담양군이 에코농공단지 등 4개소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1주 1회 내·외국인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은 이날 5개 검사팀 15명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678명(외국인 275, 내국인 403)이 검진을 마쳤다. /담양(전남)=최영상 기자 dudtkd234@

고성군, 저소득층 시술비 지원

경남 고성군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는 전부 또는 부분틀니, 임플란트는 2개까지 전액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중증장애인,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감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접수하면 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韓식품 홍보 특목

육수·유자차, 인기식품 순위 올라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식품의 미국 주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협)가 지난 달 공개한 '월간 식품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기 한국식품 톱10'에 전남의 '한식육수'와 '꿀유자차', 두 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들은 전남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지난해 11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농심의 '짜파구리 컵라면', CJ제일

제당의 '비비고 죽 콤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한식육수'는 신안새우젓(주) 업체가 육수를 내는 천연조미료를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알약처럼 포장함으로써 간편성을 높였다. 멸치, 새우젓, 다시마 등 전남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특별한 제조방법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10위에 오른 고흥 아리푸드의 '꿀유자차'는 유자와 국내산 꿀을 사용한 제품이다. 유자에이드, 유자드레싱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티백에 개별 포장 아마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목공예실 모습.

나주천연염색재단 공예왕국 명성 되찾기 나서

지역공방 작가 소개전 등 개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1900년대 초 호남지역 유일의 공예품 제작소가 위치했던 공예왕국 나주의 명성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나주 공예는 산업화 흐름 속에 침체기를 겪으며 오늘날 나주반, 쪽염색, 싹골나이 등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나주가 대표하는 색인 천연염색을 중심으로 나주 공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공예품제작소 설립 110년을 맞아 재단은 전라도 공예 부흥을 위한 나주로컬크래프트(지역공예품) 홍보 및 판매, 지역 공방작가 소개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 운영

친환경차 인프라 가동 '착착'

내달부터 인증서비스 개시
전국 최초 부품인증 국가기관

국도교통부와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이 지난 17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오는 2월부터 인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인증수요와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차 부품인증 국가기관이다

부품인증센터의 인증·평가 장비는 친환경차 배터리 평가장비 6종, 충돌 안전성 평가장비 7종,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10종, 화재재현장비 및 법적 부대장비 3종 등 26종이고 총사업비는 390억원으로 이중 국도교통부가 19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019

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세계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노사상생 일자리자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공장으로 지금은 경형 SUV인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품인증센터 인접 부지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 고도화, 기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303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됐다.

광주시는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에 한해 배터리 시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양산시 "면접 정장 빌려드립니다"

'청년날개 FIT' 시행

양산시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날개 FIT'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면접 정장 대여업체가 없어 인근 김해, 부산 등 관외로 정장을 대여하려 가야 했던 지역 청년들의 불편함과 취업 준비에서 가장 큰 부담인 면접 정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어려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여 총 182명의

청년이 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양산시는 2022년 사업에 고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면접을 보는 청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면접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더 나아진 서비스로 청년들을 지원한다.

양산시에 주민 등록을 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39세 이하 취업 면접 예정 중인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